



Slow Food
2024.02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slow food

LETTER | COLUMN | REPORT | ARK OF TASTE | PEOPLE | CONVIVIUM



© You Sang Ho



슬로푸드 소식을 모아 전하는 '슬로푸드' 섹션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슬로매거진달팽이」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슬로푸드운동의 현장은 물론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며, 매달 다양한 슬로푸드 뉴스, 인물 인터뷰, 활동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www.slowfood.or.kr 문의 02-737-1665



우리 삶을 바꾸는 5대 법안 입법을 촉구하며

오는 4월, 두 달 후면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열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반영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해 나라가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 힘겨운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가 하면, 국민이 많은 의석을 몰아주었지만 민생이 피부로 느낄 만한 입법 활동은 하지 않고 되레 더 많은 의석을 달라는 목소리만 소리 높입니다. 총선을 목전에 둔 국회는 모든 일손을 내려놓은 듯합니다. 작년 내내 먹거리 관련해 입법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국민의 삶과 가장 긴밀한 5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슬로푸드운동이 추구하는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경제적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제정해 법으로 보장받게 하자는 ‘먹거리 기본법’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협회를 포함해서 먹거리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8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우리나라 언론 대부분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 중 일본 북부지역 물고기의 폐죽음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사태를 근거로 일본 수산물물 수입하지 않은 일이 매우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물고기 폐죽음의 원인이 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제16조에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물질 오염이 현저히 의심되는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명시해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GMO법 개정안입니다. 작년 GMO 주키니 호박 사건은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정부의 검역 실패 탓에 검역을 거치지 않은 GMO 주키니 호박이 장장 8년간 재배되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 밥상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GMO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GMO로부터 밥상과 농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GMO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검역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개정법안입니다.

네 번째는 농어민소득 기본법입니다. 농사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한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나 농사가 힘겨워지는 상황에 생계마저 책임질 수 없는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농사짓는 농민들 없이는 우리 밥상이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설 명절 과일 물가 상승을 대비해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보다 손쉬운 수입 방법을 선택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농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어민소득 기본법 또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입니다. 이번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5대 법안만 통과돼도 2024년 우리 사회가 한층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닥친 현안을 처리해 제 역할을 다하기를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

2024년 1월 마지막 주에

강현에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대형 쇼핑몰에서 보내는 한나절

‘음식 시민의 행동이 푸드 시스템을 바꾼다’는 주제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3천 회가 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칼럼 중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더 다시 다듬은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환경과 생태 먹거리 시계는 거꾸로 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방식이 슬로푸드운동 실천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글 김종덕(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사진 LIU on Unsplash

대형 마트는 주말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과 주부에겐 그만한 놀이 시설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죠. 저는 푸드 시스템이야말로 현재 지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면서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푸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일조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시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그 무엇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현재 수준의 생활만 하더라도 지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다면 인류가 그간 이룬 모든 문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돌리고 탄소를 뿜어내고 자원을 써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뒤바뀐 어처구니없는 논리입니다. 지구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려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대응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공동 대응으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각국이 처한 사정은 다르지만,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개인으로서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직거래로 제철 식재료를 구매해 집에서 조리해 먹어야 합니다. 글로벌 푸드로 만든 가공식품을 먹는 것보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일회용 용기를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로푸드운동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농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역 음식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는 슬로푸드운동은 자랑스럽게 권할 가치가 있습니다.

슬로푸드운동에 동참하면 불편한 일도 즐거워지고 의미가 생깁니다. 소량으로 음식을 구매하고 시간을 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버겁지만, 자꾸 하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을 질 좋은 쌀과 유기농 채소, 과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대형 쇼핑몰에 들러 대용량으로 포장된 가공품과 냉동식품을 산 다음 푸드코트에 들어가 과당과 첨가제로 범벅된 피자와 탄산음료로 식사를 해결하고, 대량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면 나도 모르게 탄소배출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나와 자연에 좋은지 자주 반문하고, 되도록 쇼핑몰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SLOW FISH

천일염, 이제 어디에서 사야 할까?

글·사진 김준(슬로푸드한국협회 이사, 슬로피시운동본부장)



천일염문화재단을 꿈꾼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염전을 보유한 기업과 가장 많은 염전을 보유한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천일염을 매개로 문화공간을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 제안서를 마련해 논의하면서 꿈에 부풀었다.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이후 천일염과 염전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던 시기였다. 당시 천일염 정책은 건강에 좋은 기능성 소금과 천일염전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생산 현장은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천일염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미했다. 기능성 소금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소금에 관한 오해도 개선되리라 생각했었다. 소금을 명품으로 만드는 일은 프랑스 게랑드 사례에서 보듯이 ‘역사와 문화’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 천일염은 역사



가 100여 년에 불과하고, 소금 문화를 다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천일염 이전의 자연과 천일염의 연결을 시도하는 연구도 거의 없다. 이런 이유가 천일염문화재단을 제안한 배경이었다.

당시 제안한 천일염문화재단은 국립 혹은 공립 소금박물관 설립 및 운영, 소금문화 연구, 문화시설 운영, 소금문화축제 기획 및 문화사업 진행, 소금장인 및 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자원 발굴,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지금 그곳은 태양광 대신 천일염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추진 중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제염 모니터링’에 참여해 전국의 천일염전과 자염 전승 현황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소금 생산자와 소금 관련 전시관 등을 돌아봤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있는 염전은 800개 정도로 추정한다.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운 이유는 최근 폐전이 진행되고 있고, 통계마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일염문화재단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염전이 2000여 개였다. 태양광사업을 하는 업체와 계약한 염전들이 추가로 폐전할 상황이라 앞으로 염전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천일염전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천일염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태양광 설비로 전환하면서다. 그 이면에는 천일염 가격의 하락이 있다. ‘코로나19’ 이전 천일염 가격은 20kg에 3000원 이하였다. 염전 소유자들은 고령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천일염과 염전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장인으로 인정받고, 일정한 교육을 거쳐야 염전을 운영할 자격이 주어지는 프랑스 게랑드와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또 게랑드는 생태관광과 연결해 소금과 염전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염전은 이런 접근이 부재했다. 오직 몸에만 좋은 기능성 소금을 만들면 염전과 천일염의 가치가 높아지리라는 기대뿐이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염전 폐전을 부채질했다.

염전 소유주들은 소금값이 불안정해지자 염전을 장기 임대(20년)하거나 매각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제출된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위해 폐전·폐업한 염전이 240여 개에 이른다. 2020년 기준으로 염전을 운영하는 업체는 959개이며, 그중 전남이 898개 업체로, 전라남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신안군 비금면 대동염전도 태양광 설비를 하겠다고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유산 구역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결국 등록문화재가 태양광에 둘러싸인 꼴이 되고 말았다. 대동염전조합 대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후회한다. 올해 소금값이 2만5000원 이상에 거래되었다”라고 했다. 염전 면적이 크게 줄어 가격은 다소 조정되었지만 염전을 지속하는 편이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계화가 추진되고 있고, 스마트 염전도 연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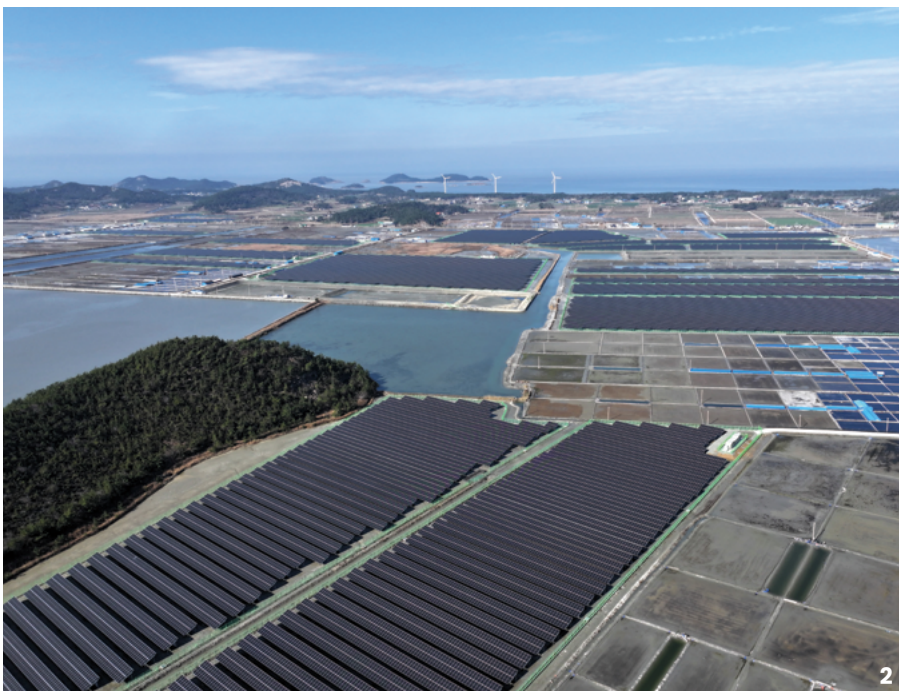
‘슬로푸드한국협회 슬로푸드운동본부’가 신안에서 소금 고사를 지낸 지 15년이 되었다. 그 사이 소금밭에는 2대, 3대로 이어지는 가족들이 생겨났다. 이 여행에 참여했다가 소금밭 지키는 일을 하겠다는 공동생산자도 생겨났다. 천일염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음식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그 일은 염전과 생산자를 존중하는 시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뜻한 5월에 신안에서 펼쳐질 ‘토판염 소금 고사’가 벌써 기다려진다. ●



신안 박성춘 토판염에서 진행된 소금 고사(2022년)



1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등록문화재에서 해제된 대동염전 일부
2 소금 섬에서 태양광 섬으로 바뀌고 있는 신안군 비금도



김준 박사는... 한국 슬로피시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섬진흥원 이사이자 슬로푸드한국협회 이사다. 어촌사회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속 가능한 어촌과 어업, 주민이 행복한 섬마을과 지속 가능한 섬살이에 관심이 많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섬, 어촌, 갯벌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다 퇴직했다. 지금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수행하며 섬과 갯벌을 답사한다. 쓴 책으로 『섬살이』 『섬문화답사기』 시리즈, 『어촌사회학』 『바다맛기행』 시리즈, 『어떤 소금을 먹을까』 『물고기가 왜?』 『바닷마을인문학』 『바다인문학』 『섬살이섬밥상』 등이 있다.



고화순 대표 작업실에 가면 여러 가지 말린 나물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나물 명인이 된 ‘농업회사법인하늘농가(주)’ 고화순 대표 “어릴 때부터 먹던 나물로 기업을 세웠어요”

고화순 대표를 설명하는 말에 나물을 빼놓을 수 없다. 특별히 고사리나물 제조법은 1대 외할머니, 2대 어머니에게서 전수해 이제 딸에게 전해주며 100년 넘게 이어왔다. 고 대표는 지극한 나물 사랑으로 대한민국 최초 ‘나물 식품 명인’, ‘기능한국인’으로 인정받았다. 5000여 곳 초·중·고등학교에 안전한 나물 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맺어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나물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하는 꿈을 꾸고 있다.

인터뷰 진행 고지현(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고화순 대표 제공

Q 굳세게 기업을 운영하며 가업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말씀해주세요.

A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하며 자랐습니다. 울진은 산촌과 바다가 공존하는 고장입니다. 어머니는 금강송면 마을과 매화면 마을을 오가며 나물을 뜯고, 이웃 주민들이 채취한 나물을 구매하고 판매하셨어요.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생선에 고사리를 넣은 어계장을 가마솥 한가득 끓여서 산촌에서 장 보러 오시

는 사람들에게 점심으로 대접하셨습니다. 바쁜 어머니를 돕고, 나물 음식도 만들면서 늘 나물을 가까이하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나물을 사내 식당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도 부업으로 나물을 홍보했어요. 맛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사람들에게 알릴 때도 마음이 절로 뿌듯했죠. 깨끗이 다듬은 나물이 학교에서 인기가 좋아져 판매 물량이 늘어나면서 남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전국 산지를 다니며 생소한 나물을 만나면 영양사님들에게 급식으로 소개하고,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제안하면서 가슴 뛰고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을 텐데 말이죠.

Q 『조물조물 나물 이야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고사리 명인으로서 또 책의 저자로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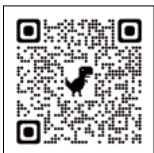
A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 『산가요록』 23개 문헌에 ‘고사리나물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은 채소가 귀한 겨울철에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봄, 가을에 지천으로 깔린 나물을 채취해서 말려뒀다 이듬해 봄까지 먹었습니다. 『동국세시기』에는 그해 첫 대보름날에는 아홉 가지 나물을 먹어야 무병장수한다는 풍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물은 불리고 데치고 손질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대의 바쁜 주부들이 꺼리는 반찬이 되었고, 아이들은 육식만 선호해 나물 반찬을 싫어합니다. 생활습관병 예방 차원에서도 채소를 같이 먹어줘야 하는데, 점저 나물 반찬이 밥상에서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물 명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나물 전도사’가 되려고 대표적인 나물 5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나물 명칭의 유래, 영양성분, 간단한 요리 방법, 나물의 생김새 등을 보며 나물을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히 장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가장 좋아하고 자주 만드시는 나물 반찬을 소개해주세요.

A 고사리콩가루국과 고사리들깨볶음입니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할 만큼 단백질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체중조절, 혈당 조절, 혈관 건강, 수면 건강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증상과 질병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식물입니다. 토양이 오염된 곳에서는 자라지 않는 고품격 친환경 식물이죠. 말린 고사리는 온수에 3시간 정도 불린 후 끓는 물에 천천히 삶아 건져서 찬물에 담가 뉘다가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 기본양념은 한식 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기름을 넣고 고사리를 조물조물 무친 다음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 볶은 후 맛국물을 부어 중불에서 뜸을 들입니다. 불을 끄고 들깨나 콩가루로 간을 맞춘 후 다시 한번 끓이면 맛있는 고사리 반찬이 완성됩니다. ●



1 기본에 충실한 깔끔함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고사리나물
2 고화순 대표의 나물 이야기를 엮어 출간한 책 『조물조물 나물 이야기』
3 고사리나물을 무치는 고화순 대표



● 농업회사법인하늘농가(주)
홈페이지 www.onskyfarm.com
쇼핑몰 smartstore.naver.com/onskyfarm



체르노빌과 벨라루스 지역의 폐허

© se9/Balakan Unsplash

책으로 읽는 슬로푸드 ② 『체르노빌의 목소리』 핵 혹은 원자력을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책

글 김용수(전북 고창지부, 고창백복스 '꾼' 대표) 사진 Unsplash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나보다 더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차라리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 더 큰 후회와 한탄이 있기 전에..”

“군사적 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것이지만, 평화적 핵은 집집마다 있는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이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범자라는 사실을..”

알렉시예비치는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라고 썼다. 하지만 핵은 현재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핵과 함께 살고 있고, 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정작 핵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며 산다. 핵은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과학이나 무기이다. 핵이 일순간 우리에게 공포와 파괴력으로 다가온 적이 있다. 히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트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도서출판 새인 펴냄)

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처음 경험했다. 두 사건은 지금도 일본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한 응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군사적 핵을 처음 경험한 결과가 이런 인식을 심었다. 그리고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고, 25년 후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군사적 핵 사용과 평화적 핵 사용의 결과는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핵과 관련한 네 개의 큰 사건 중에서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진솔하게 만들어 알린 이야기는 오로지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뿐이다.

나는 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핵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핵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든, 발전소를 만들든, 과정도 구체적이고 결과도 구체적이다. 그 가운데 놓치는 하나는, 그 구체적인 결과 때문에 아픔을 겪은 사람들, 아픔을 겪게 될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이다. 다행히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는 알렉시예비치의 노력으로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일본에서 일어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 결과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결과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그린에너지를 향해 가던 방향이 꺾였다. 핵발전소가 에너지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경제적 부가가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수습에 나섰다. 아주 용감하게 맨몸으로 핵발전소의 사고 현장을 대면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하게 결정하고 앞뒤 분간 없이 뛰어든 사람들이었다. 물론 대부분 죽거나 평생 불치로 살아야 했다. 그러고도 체르노빌핵발전소는 지금까지 해결 방법이 없다. 그냥 덮어두고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 후쿠시마도 다를 바 없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반핵주의자가 되었다. 원자력연구원에 아는 사람도 여럿 있고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강의로 감동하며 들었다. ‘그래, 원자력이 답이다. 그나마 원자력이 있어 얼마나 고마운가’라고 생각했었다. 친절하게도 원자력발전이라고 했다. 지금은 핵발전소라고 한다. 핵분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폭탄이라고 하지 않고 핵폭탄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할 수도 있다. ●

© Oleksandra Bardash on Unsplash



체르노빌과 벨라루스 지역의 폐허



지상에서의 생선 한 점

이 겨울, 우리나라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뽕뽕 언강물 위를 걸어가 구멍을 내고 낚시를 하며 손맛을 즐겨보겠다는 강태공들로 축제 현장은 인산인해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즐거운 축제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명암이 있겠지만 매년 수천 톤의 쓰레기가 나오는 축제, 생태계가 몸살을 앓는 축제 말고 깨끗하고 순한 축제를 기다립니다.

글 고지현(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Unsplash, 네이버 검색하면 캡처



12월에서 1월로 이어지는 시간은 축제의 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면서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연어와 굴이 대표적인 겨울 축제 음식이고 과메기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맛있게 먹으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왔나 생각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힘찬 몸짓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다 문득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연어는 개울의 자갈 바닥에서 수정되어 손톱만 한 치어로 태어난 다음 체력을 기른 후 바다로 나가 생활하다가 마법 같은 후각 능력을 발휘해 다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온갖 고난을 이기고 악착같이 살아 돌아온 이유가 '죽기 위해서'이기에 그 역설적이고 치열한 삶을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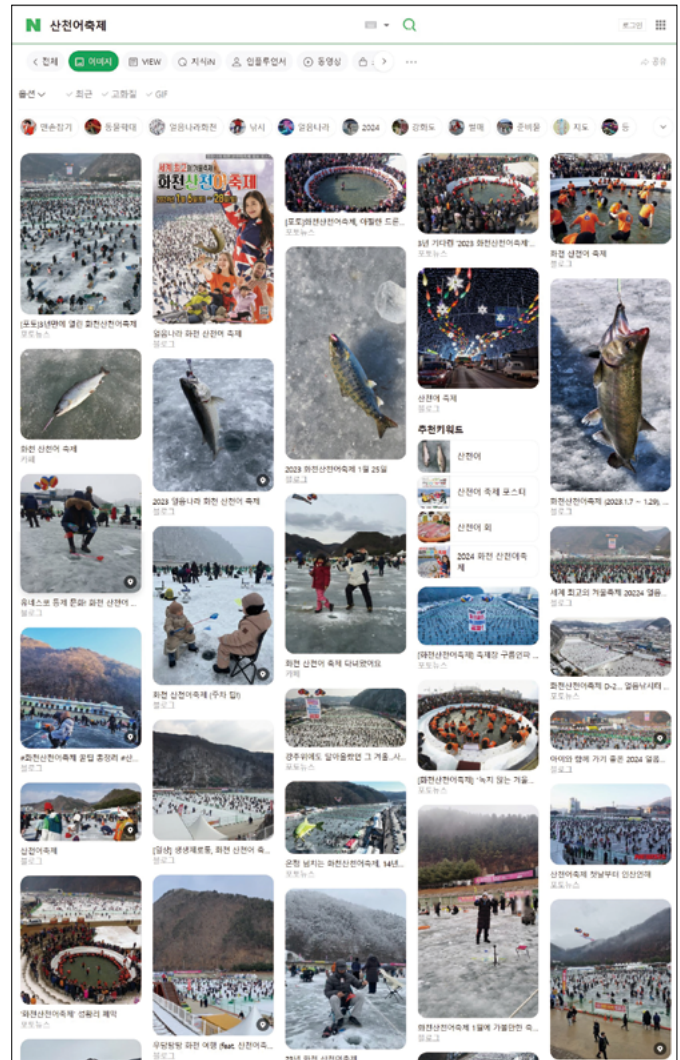
1 하천을 거스르는 연어
2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

래한 것이죠. 거친 물살을 거슬러 뛰어오르다가 천적을 만나 몸 일부를 뜯긴 채 강바닥에 내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헛된 죽음은 아닙니다. 남은 부위는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어 자연을 돌아가게 하니, 연어의 회귀는 자연의 바퀴를 돌리는 동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는 연어는 계곡과 강, 폭포와 바다를 오가며 헤엄쳤던 연어가 아닙니다. 유전자를 개량하고, 색소를 넣어 맛있게 보이도록 만든 양식 연어입니다. 그저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생 연어를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연어가 다니는 개천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결국 시장에 가서 야생 연어를 사야 하는데 그런 건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인 중에 생선도 자연산이 아니면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참 별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맞는 거였습니다. 양식은 맛이 없어서 외면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연산 물고기를 소량, 필요한 만큼만 먹고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생활이죠. 공공연 동네 하천에 나가 얼음을 깨서 필요한 만큼 물고기를 잡고, 바다에서는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그런 감수성을 일깨우려고 지자체에서는 겨울 물고기 잡기 축제를 엽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드니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서는 사력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는데, 그 하천 물고기는 전부 양식장에서 가져와 투입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뀐 고기들은 사람들의 손에 잡히기 전에 먼저 죽어버리고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관광객이 버리고 간 일회용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 지역을 살리겠다고 여는 축제가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환경을 망쳐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역설, 생태 수레바퀴를 맞게 하는 활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 당시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에 떨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뎌져 갑니다. 세상이 시간보다 힘이 센 것이 없진 합니다.

얼마 전 일본 홋카이도 해변에 집단폐사한 물고기 수천 톤이 밀려들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했죠. 죽어버린 물고기들도 불쌍하고 그동안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일본 수산 연구소에서는 물고기 떼가 포식자에게 쫓겨 탈진하며 죽었을 거라는 황당한 발표를 했더군요. 일본의 물고기 집단폐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티즌들은 기사 댓글에 원전 오염수 때문이라는 둥, 인류의 멸망이 멀지 않은 증거라는 둥 일본 오염수 방류를 다시 문제 삼았고 중국 당국도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네이버 검색창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검색하면 수많은 현장 사진이 올라온다. 조금은 달라진 관련 뉴스들이나 포스팅들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다.

의 당위성으로 받아쳤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어도 바다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바다 없이는 인류의 삶과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지상에서 버리는 모든 오염물질이 바다로 간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모여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일, 입법 제안 기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방관하지 말고 참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생태 중요성을 알리는 슬로푸드운동 동참을 권하는 슬로푸드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시선과 행동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큰 변화의 물줄기를 이뤄 사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뇌어봅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슬로푸드운동을 하고 있을까?

2023년 11월 전 세계 슬로푸드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다양한 테라마드레데이와 다양한 모임의 날 행사가 슬로푸드 인스타그램에 공유되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참고할 만한 것을 간단한 설명과 사진으로 공유한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국제슬로푸드협회 인스타그램(@slowfood_international) 캡처



#1 슬로푸드 오키나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해초를 먹는다. 오키나와 아키타현의 슬로푸드에서는 2회째 국제 해초 회의를 열었다. 일본인들은 해초 정상회담(seaweed summit)에 해초를 먹지 않는 서구권 학자들을 초대해 해초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고, 해초를 먹는 식문화를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다. 폐교 체육관에는 오래된 어구와 해초 따는 도구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어 해양수산식문화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 여수지부는 여수 일대 섬에서 자라는 해초로 밥상을 차리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역의 특색있는 식재료와 식문화를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콘퍼런스와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겠다.



1 다양한 해초류로 차린 밥상 2 해초류를 말리는 동네 주민 3 어구로 가득 찬 폐교의 체육관 내부



국제슬로푸드협회
인스타그램



발효종을 나눠 가는 지역 주민들

#2 슬로푸드 프랑스

슬로푸드 프랑스는 고대 밀가루와 전통 발효 방식을 이용한 슬로 브레드 행사를 많이 연다. 토론을 좋아하는 국민성을 반영하듯 제빵사와 밀가루 전문가들이 제빵과 발효 경험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세미나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시식 체험은 아주 소박하다. 시간과 장소에 맞춰 지역 주민들이 용기를 들고 방문하면 전통 발효종으로 부풀린 빵 반죽을 덜어 갈 수 있다. 이 반죽을 집에 가져가 계속 빵을 만들어 먹는다. 우리가 씨간장을 조금씩 섞어서 전통 집 간장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프랑스 하면 미식의 본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빵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슬로푸드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 슬로푸드 사우디아라비아

슬로푸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립협회와 이탈리아 대사관이 함께 이탈리아 요리 주간을 진행했다.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지역의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조리법으로 만든 이탈리아 슬로푸드 음식 한 상을 맛보면서 멋진 식문화 체험을 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탈리아 문화원이 주관하는 이탈리아 미식 주간에 우리 협회와 협업했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슬로푸드와 연대할 수 있는 내외빈을 초청해서 후원 행사를 진행하면 어떨지 생각해봤다.



1 조리사동맹 소속 조리사가 맛의 방주를 재료로 만찬 준비를 하고 있다.

2,3 사막의 요새처럼 보이는 전통 공간에서 내빈들이 모여 슬로푸드 음식을 먹고 있다.

#4 슬로푸드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23년 11월 15~19일 슬로푸드 테라 마드레 데이를 축하했다. 필리핀 슬로푸드 최초로 여는 행사라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필리핀 비사야스 지역의 전통 음식을 맛보았다. 비사야스는 필리핀 중부에 있는 휴양지로 주민 전체가 관광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산다. 그런 환경에서 슬로푸드 테라마드레데이를 통해 소작농, 생산자, 요리사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지역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가 크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면서 농업과 생산이 지구 생태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음식 유산을 지키는 것이 그 열쇠임을 확인했다. ●



1



2

1 비사야스 토종 식재료로 만든 음식
2 워크숍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해 발표하는 생산자

슬로푸드 생산자를 만나보세요!

2023년 만남의 날에 후원 물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생산자와 물품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생산 철학과 물품의 특징, 구매 방법을 소개하니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글·사진 임영혜, 장미향



1



2



3



4

1 양주 서현농장 무농약 누룽지, 황도 복숭아, 코코넛으로 반죽해 이국적이면서 건강한 단맛을 내는 대표 제품이다. 가격 3만6000원
2 우리 밀에 당근을 듬뿍 넣은 파운드케이크. 모양도 좋고 맛도 좋아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디저트다. 개당 3500원
3 국산 볶은 현미에 깨끗하게 씻어 구운 견과류, 가마솥에서 고아낸 수제 조청을 사용. 켈로그에 견과류와 생크림을 더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간식이다. 개당 1700원
4 지리산 앞은뱅이밀, 견과류, 무스코바도 설탕을 넣어 맛이 고급스럽다. 가격 3만6000원

임영혜 회원의 '마더 파이앤쿠키'

“홈베이킹은 꾸준히 했는데 시부모님 치매 수발을 8년간 하면서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던 중 사촌 동생이 카페를 열면서 파이를 구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파이를 맛본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작업장을 준비하고 주문생산 방식으로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우리 밀, 무항생제 달걀, 유기농 설탕 무스코바도를 사용해 만듭니다.”



위치 서울 구로구 중앙로1길 18-19 우성현대아파트 상가동 203호 **블로그** blog.naver.com/mother3989
인스타그램 @mother.pie **주문 및 문의** 010-2358-3989

장미향 회원의 '하네뜨' 우유와 요구르트

“가족의 풍요로운 식탁을 꾸며며 ‘매일 짠 우유로 천천히 만드는 유제품’을 철학으로 포천에서 농장을 운영합니다. 1만6000여 평 초지에서 풀을 키워 소에게 먹이고, 농장에서 만든 치즈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영종면 금화봉길 583-8 하네뜨 치즈카페
 쇼핑몰 smartstore.naver.com/hanette
 인스타그램 @hanette_cheese_cafe @hanette_official



1 하네뜨 치즈카페 **2** 하네뜨 제품 구러미 팩 **3** 하네뜨 꾸덕한 그릭요구르트. 떠먹는 타입의 요구르트지만 우유를 밀도 있게 농축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 꿀과 섞어서 바로 먹거나 빵에 발라 먹기 좋다. 250g 8500원 **4** 무항생제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에는 유기농 비정제당을 사용하는데 일반 설탕에 비해 3배 더 비싼 재료지만 마시면 몸에 좋은 요구르트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생산한다. 요구르트를 마시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속도 편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족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다. 1000mL 1병당 8500원 **5** 하네뜨 목장 우유는 130°C 고온 살균하는 대부분의 시중 우유와 달리 저온살균 처리한다. 단백질 변성이 없어 유당분해 효소와 상관없이 마시고 나서 속이 편한 우유다. 원유는 포천 농장에서 재배한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짠 우유로 오메가3와 6의 지방산 비율이 적합하다. 용량도 요즘 보기 드물게 1000mL를 꼭 채웠다. 시중 제품들이 1L로 착각할 수 있는 용기에 900mL가량 넣어 원가를 낮추는 꼼수와 비교된다. 가격 5300원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 회원 활동 소개 오늘도 우리는 슬로푸드

작지만 자긍심 있게 만남을 꾸려가는 지부 회원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슬로푸드 실천을 위해 다 같이, 더 많이, 더 넓게 일하는 2024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해당 지부 회원들



◀담양 예비지부 출범식 참석자들

슬로푸드 담양지부 출범식 개최

2023년 12월 26일, 전남 담양군 여성농업인 생활문화센터에서 담양지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담양지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예비지부로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지부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출범식은 이영미 창극단 단타 공연이 사전 행사로 흥을 돋우고, 이어 내빈 소개와 기념 떡케이크 커팅, 슬로푸드 담양지부장 광경자 박사 인사말, 슬로푸드 담양지부 교문을 맡은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환영사, 소금영 조선대 의대 교수, 조자용 전남도립대 교수, 박민숙 슬로푸드 광주지부장, 박영식 담양재생협회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협회 김종덕 회장이 '슬로푸드운동의 이해', 장현예 상임이사가 작성하고 만들어 출범해 매우 의미 있는 출발로 여겨졌으며, 참석 회원들이 선언문을 낭독해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슬로푸드운동 자원이 풍부한 담양 지역에 예비지부가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슬로푸드운동을 전개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체로서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2 '태안으로 어케이션(漁케이션)' 참여

협회 강남지부 박세정 회원과 남양주 지부 현은주 회원이 2023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 동안 '태안으로 어케이션(漁케이션)'이라는 어촌 체류에 참석했습니다. 500명의 신청자 중에서 30명만이 선정되었다고 하니 어촌으로 귀촌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케이션 참가자들은 먼저 귀촌한 주민들의 사례를 듣고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관계자들과 마을 이장님을 만나 대화하며 어촌의 생생한 삶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촌이나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회원들은 '마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진도에서 한 달 이상 살아본 참석자가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2023년도 제9차 대의원 총회

3 2024년 3월 15일 제10차 슬로푸드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2024년 갑진년 우리 협회는 슬로푸드운동 확산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첫걸음은 총회입니다. 협회의 최종 의사결정 주체는 총회이며, 총회가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뤄지므로 총회는 협회 운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총회는 지역을 대표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총회 전 각 지부에서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총회에서는 2023년 활동 보고와 2024년 활동 계획을 확정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4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법안 입법 촉구 연대'는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장현에 상임이사가 대표로 참석해 먹거리 기본법, 학교급식법, GMO 반대법, 농어민소득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5대 법안을 총선 전에 입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각 법안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는 만큼 국회가 여야를 떠나 법안이 가진 의미를 인식하고 논의해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5 '2024 슬로푸드 테라마드레' 9월 개최

2024 테라마드레 홈페이지 2024.
terramadresalonedelgusto.com

장소 이탈리아 튠린 파르코 도라

기간 2024년 9월 26~30일

전 세계 슬로푸드 네트워크와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게 될 파르코 도라는 산업 시대에 번성했던 철제부품 공장과 타이어 공장이 폐쇄되면서 도심 근처에 버려진 상당한 넓이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규모 공원을 만들고, 공원 한가운데에 공장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둬으로써 과거 산업 부지로 사용되었던 역사도 기록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 슬로푸드인이 모이는 테라마드레를 연다는 사실은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2년 테라마드레에서 무키비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토리노에 모인 수백 명의 농부, 요리사, 식품 생산자, 활동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보고 듣고 교환했습니다.”

슬로푸드 네트워크의 글로벌 모임이자 지속 가능한 식량 및 식량 정치에 전념하는 세계 최대 행사 '제15회 테라마드레 살롱 델 구스토(Terra Madre Salone del Gusto)'에서는 음식이 어떻게 평화로 가는 다리가 되는지, 포용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0개국에서 온 3000명 넘는 슬로푸드 네트워크 대표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모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슬로푸드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소속감 또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슬로푸드 코리아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부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

슬로푸드회원특가

**달팽이 매거진
연 구독 할인**

연 구독 18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 할인되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현금가)

슬로푸드회원만 특별히!!
문의전화는 협회로
입금과 배송은 최영미 회원

02-737-1665

슬로푸드 회원이되면 멋진세상이..

슬로푸드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자랑스런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이 내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소멸위기의 종자 및 음식 유산을 지키는 맛의방주 발굴 및 등재
- 슬로푸드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어머니인 땅" 워크숍
- 슬로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슬로푸드축제 참가 및 개최
- 유전자조작식재료(GMO) 반대
-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키는 슬로피시 운동
- 조리로 농업과 건강, 식문화를 지키는 "조리하는대한민국" 캠페인
- 콩 유전자원 보전과 자급 실현을 위한 "콩의나라대한민국" 캠페인
- 공장식 축산 육제품 대신, 적게 먹되 제대로 된 고기를 먹자는 "슬로미트" 운동
- 우리 차의 소중함을 느끼고 차생산자를 돕는 "차마시는 사회" 캠페인
-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슬로푸드집밥리더" 양성
- 음식 독서, 공동부엌, 토종씨앗 보전, 생산자 격려 등 지역별 지부 및 커뮤니티 육성

슬로푸드 회원이 되시면 위와 같은 일을 지원하는 외에도 160개국의 슬로푸드 회원들과의 연대 안에서 지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슬로푸드 공동생산자가 되어 먹을거리의 기본인 농업, 땅, 가족농, 종자를 지킵니다. 또한 슬로푸드 지부나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벤트도 열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3년12~2024년1월 슬로푸드 후원자 (정기회비납부자) 명단

(사)가배울(대표김정민)/전남강진, 푸른콩방주(대표김민수)/제주, (주)도담(대표이원영/슬로푸드친구들)/충북청주, (주)뜰과숲(대표권춘희/슬로푸드친구들)/서울강남, (주)물과산소(대표우병렬)경기김포, (주)쁘리마쥬(대표오진수/슬로푸드친구들)/경기안양, (주)생태미식연구소(대표남윤미)/경기여주, (주)선농생활(대표신동수)경기양평, (주)제주마미(대표김정옥)/제주, (주)초정(대표정인숙)/전남곡성, John Kenneth Lee/전남장흥, NIINUMA CHIKA/서울마포, 강경갑/부산광역시, 강경석/제주, 강경아/서울용산, 강경우/전남고흥, 강구열/경북예천, 강금란/전북군산, 강능규/경기화성, 강대욱/경남거창, 강라희/광주광역시, 강미경/충남논산, 강민규/울산광역시, 강범식/경기안양, 강병규/전북남원, 강석찬/경기화성, 강성일/제주, 강순아/서울서초, 강양숙/제주, 강영수/대구광역시, 강영주/충남서천, 강은미/전북김제, 강은주/경기양주, 강장원/경기안양, 강정미/충남서천, 강주남/제주, 강지윤/전북고창, 강창건/제주, 강혜련/충남예산, 행복빛는떡시루(대표강혜진)/전북군산, 강희숙/경기파주, 강희진/충남예산, 경소정/경기남양주, 경지현/서울강남, 고금희/경기화성, 고미애/전북완주, 고민주/충북청주, 고성광/경기고양, 고양찬우물농장/경기고양, 고영/경기화성, 고영희/제주, 고영희/제주, 고옥희/경기

파주, 고용준/제주, 고운/서울마포, 고은정/제주, 고은정/전북남원, 고인정/경기평택, 고재섭/경북영양, 고점석/전북부안, 고지현/서울용산, 고현미/경기남양주, 고현준/제주, 고혜선/전북전주, 고화순/경기남양주, 공항숙/전남광양, 광경자/전남담양, 광민선/서울강남, 광민선/서울용산, 광선미/서울강남, 광주홍/경남김해, 광찬열/경기고양, 구본일/경기파주, 구영자/광주광역시, 구자운/충남예산, 국영주/강원홍천, 권미연/경기부천, 권성원/서울은평, 권연숙/경북울릉, 권영주/경남창원, 권오경/경기양평, 권오열/세종시, 권용덕/경기고양, 권용인/강원홍천, 권은민/서울종로, 권은숙/경북울릉, 권인옥/서울강북, 권재영/미지정, 권찬중/경북울릉, 권태훈/대전광역시, 권향숙/경기파주, 권혁현/서울서초, 권화조/경북울릉, 규반(대표)/서울 중구, 금경연/경기화성, 금대연/경기화성, 기중서/제주, 김경란/서울도봉, 김경숙/전남장흥, 김경숙/서울은평, 김경아/경기부천, 김경자/전남담양, 김경희/서울성동, 김경희/충남예산, 김경희/서울성북, 김경희/경기의정부, 김관숙/전북완주, 김관영/전북군산, 김관호/충남서산, 김광옥/광주광역시, 김광태/경북고성, 김귀임/광주광역시, 김금옥/경기남양주, 김기남/전북부안, 김기라/전남광주, 김기열/서울영등포, 김나경/부산, 김나영/서울중랑, 김나현/경남하동, 김다솔/경기파주, 김대수/서울성북, 김덕일/경기평택, 김도원/제주, 김도윤/경북울릉, 김동관/전남고흥, 김동숙/경기파주, 김동우/경기오산, 김동자/경북울릉, 김동환/충남논산, 김명미/서울관악, 김명숙/경북울릉, 김명숙/경기용인, 김명애/경북울릉, 김명옥/전북전주, 김명희/서울노원, 김명희/충남홍성, 김명희/충남홍성, 김미경/광주광역시, 김미나/부산광역시, 김미득/경남창원, 김미라/전남순천, 김미라/전남완도, 김미숙/서울마포, 김미숙/서울강서, 김미영/경기파주, 김미진/광주광역시, 김미혜/경기양평, 김미희/경남하동, 김미희/전남여수, 김민영/경기남양주, 김민정/광주광역시, 김민호/경기광주, 김민희/제주시, 김병기/서울서초, 김병수/경북울릉, 김보람/서울노원, 김복남/경북울진, 김복희/광주광역시, 김부미/서울서초, 김상권/경기화성, 김상기/경기파주, 김상범/전남무안, 김상희/경기파주, 김생기/서울구로, 김서원/경기파주, 김선관/전남여수, 김선란/전남순천, 김선유/서울동대문, 김선화/서울용산, 김선화/경북울릉, 김선희/전남무안, 김선희/부산광역시, 김성수/전남여수, 김성윤/경기남양주, 김성은/전북부안, 김성일/충북청주, 김성현/전남목포, 김성훈/경기평택, 김성희/서울서초, 김소연/경기평택, 김소행/전북고창, 김수남/전북고창, 김수미/경남고성, 김수미/경기의정부, 김수영/경기수원, 김수진/서울구로, 김수하/경남밀양, 김수현/경기화성, 김숙정/전북전주, 김순주/경북울릉, 김순향/전남여수, 김순화/경북울릉, 김승준/서울용산, 김승환/경북울릉, 김아윤/슬로청춘, 김여진/전북전주, 김연주/충남서산, 김연태/서울관악, 김영경/경기여주, 김영금/경기파주, 김영남/경북울릉, 김영란/충북제천, 김영란/전남신안, 김영림/서울관악, 김영림/서울동작, 김영미/서울성북, 김영미/전북고창, 김영숙/충남예산, 김영숙/부산광역시, 김영숙/전북고창, 김영순/경기파주, 김영식/세종, 김영신/전남완도, 김영애/경기양주, 김영옥/전남화순, 김영주/서울강남, 김영택/전북익산, 김영향/서울구로, 김영희/전남담양, 김예성/서울강남, 김옥분/충남홍성, 김옥분/경북울릉, 김옥선/서울송파, 김옥선/경북울릉, 김옥연/경남창원, 김옥용/경북울릉, 김완섭/경북안동, 김용수/전북고창, 김원봉/경기여주, 김원일/서울종로, 김원형/경기남양주, 김유나/서울용산구, 김유신/서울은평, 김윤미/경기남양주, 김윤석/전남여수, 김윤정/서울성북, 김윤주/경기양평, 김은경/전북군산, 김은규/전남강진,

김은성/전북고창, 김은숙/서울중구, 김은숙/경기양주, 김은아/경북울릉, 김은영/경기의정부, 김은주/전남여수, 김은하(김규량)/광주광역시, 김은혜/경기양평, 김익현/경기의정부, 김인수/전남곡성, 김인숙/서울서초, 김인순/전북전주, 김인자/경기파주, 김자현/서울관악, 김재광/경기고양, 김정규/경기김포, 김정수/서울동작, 김정수/경기파주, 김정아/제주, 김정은/경북울릉, 김정은/부산해운대, 김정열/제주, 김정은/경북울릉, 김정은/경기의정부, 김정은/경기양평, 김정은/전남여수, 김종덕/서울동작, 김종애/충북충주, 김종철/제주, 김종화/강원철원, 김주덕/제주, 김주연/전북부안, 김주혜/경기성남, 김주희/서울동대문, 김준/광주광역시, 김지영/경기안산, 김진만/대전광역시, 김진수/전남여수, 김진옥/광주광역시, 김진옥/경기화성, 김진주/전북전주, 김진태/전남고흥, 김찬주/경기시흥, 김창균/전북정읍, 김채옥/서울동대문, 김채윤/경북예천, 김채윤/전북전주, 김추자/전남여수, 김춘교/경기부천, 김춘성/경기하남, 김충구/충남천안, 김태분/경북울릉, 김태양/경기여주, 김태용/전북전주, 김태철/경기성남, 김태훈/전북전주, 김하경/서울동작, 김하나/전남강진, 김학현/경기파주, 김형근/제주, 김현린/경북울릉, 김현곤/전북진안, 김현규/전북군산, 김현석/서울시중구, 김현숙/경기이천, 김현숙/경기김포, 김현숙/경기의정부, 김현순/서울은평, 김현영/전남장성, 김현옥/경북울릉, 김현옥/경기부천, 김형근/경기평택, 김형순/경기고양, 김형애/충남예산, 김혜경/전북남원, 김혜란/서울종로, 김혜숙/강원강릉, 김흥기/충남예산, 김희명/전북군산, 김희섭/경기하남, 김희순/전북군산(정담순대), 김희영/김희재/부산광역시, 꽃다비/전남나주, 나경희/전북고창, 나예주발효/경남거창, 나혜리/경기남양주, 남선녀/전남여수, 남은주/경기안성, 남정희/경북울릉, 남창우/전남순천, 남한권/경북울릉, 노국환/경기양평, 노명희/경북상주, 노미경/경기여주, 노민영/서울종로, 노영도/경남창원, 농업법인 금오도섬마을방풍, 농업회사법인 농부생각(대표김동완)/충남아산, 느린세상영농조합법인(대표김갑남)/경북상주, 다정농원(대표심복남)/경북성주, 도덕현/전북고창, 때맞춰내린비 시우/경기고양, 라연화/경기고양, 라호채/전북무주, 류경옥/광주광역시, 류명주/광주광역시, 류정기/경기고양, 류춘자/경기고양, 르도혜/부산광역시, 마경희/경북울릉, 마행덕/충북청주, 문명숙/경북울릉, 문서정/경기수원, 문성희/경북청도, 문순자/경북울릉, 문오권/광주광역시, 문유숙/서울은평, 문재형/경기하남, 문종환/경북영양, 문주현/경남창원, 문지영/서울은평, 민경윤/경기용인, 민진옥/서울동대문, 바른식습관연구소(대표김아람)/경기광명, 박경숙/서울종로, 박경아/경기남양주, 박경하/충남예산, 박경희/경기파주, 박광철/전북전주, 박기호/경북울릉, 박남옥/전남여수, 박덕수/경북울릉, 박도희(박소연)/경기양평, 박동근/서울강남, 박동금/전북완주, 박동우/서울마포, 박래훈/경기화성, 박만희/광주광역시, 박명선/경기파주, 박미경/경남함양, 박미현/경기고양, 박민숙/광주광역시, 박민제/경기양평, 박상미/서울종로, 박상일/전남해남, 박서필/캄보디아, 박석희/서울동작, 박선영/경기고양, 박선흠/전남여수, 박성미/전남여수, 박성숙/독일, 박성자/경기평택, 박성춘/전남신안, 박성혜/경기광주, 박세정/서울양천, 박소현/경기성남, 박수진/전북부안, 박수진/경북울릉, 박순덕/경북울릉, 박애경/경기양평, 박연주/경기파주, 박영미/서울종로, 박영수/제주, 박영심/전북군산, 박영애/강원홍천, 박영재/경기수원, 박영희/제주, 박용수/경북울릉, 박은경/경기평택, 박이현/전남고흥, 박인숙/전남 담양, 박일두/전북전주, 박재원/서울강남, 박재현/ ,박정록/경기남양주, 박정실/서울용산, 박정애/경북울릉, 박정욱/경기안양, 박

정희/서울은평, 박종숙/경기이천, 박종일/서울강서, 박진숙/경기고양, 박찬영/서울관악, 박철민/경기 용인, 박태원/경기양평, 박한주/경기양주, 박혜숙/전남여수, 박홍균/전남신안, 박희옥/서울종로, 반기민/충북청주, 배경선/경기안양, 배경연/경기파주, 배덕희/전북진안, 배동국/대구광역시, 배연하/전남고흥, 배영혜/경기화성, 배인숙/경기성남, 배재희/전남영암, 배정숙/충남논산, 백관실/경남진주, 백광빈/경기평택, 백수환/광주광역시, 백혜숙/서울송파, 변경숙/서울송파, 변 산노을/경기양평, 변옥분/경북울릉, 변은숙/제주, 변인화/서울영등포, 변창신/제주, 봉밀가평양냉면/서울강남, 부명미/경기 파주, 부정숙/제주, 사랑의 손힐링리더스/광주광역시, 서동현/일산고양, 서미향/서울관악, 서상덕/전 남보성, 서석림/경기양주, 서은경/충남예산, 서종호/대구광역시, 서주희/전북군산, 서해용/충북청주, 서희주/경기파주, 선재스님/경기용인, 선정우/경기성남, 성길현/경기고양, 성명순/경기수원, 성미선 /경기남양주, 성민용/충북청주, 성선희/서울강남, 성세아/경기사흥, 성용호/서울서초, 성점숙/전남함 평, 성정민/경기성남, 성현주/경기옥천, 소인경/경남통영, 소혜순/경기남양주, 손금숙/서울광진, 손 덕식/전북정읍, 손영숙/강원철원, 손영옥/서울서초, 손영자/전남화순, 손용원/경북울진, 손정숙/경북 울릉, 손정희/충남홍성, 손철수/서울성동, 손혜연/서울송파, 손화자/경북울릉, 송관용/서울서초, 송 기희/광주광역시, 송동흙/서울서대문, 송미경/경북울릉, 송미경/경기성남, 송미령/전북전주, 송미화/ 경북울릉, 송서윤/대전광역시, 송수연/경북안동, 송영희/경기양평, 송재향/전남여수, 송정선/경기파 주, 송정숙/경기파주, 송정은/서울강서, 송주희/경기광주, 송지은/경기양주, 송진선/부산직할시, 송 창재/제주, 송철식/경남창원, 송청락/강원도춘천, 송태경/전북진안, 송혜민/경기남양주, 시드컴퍼니 언니네(대표박정록)/경북영주, 시미란/경기광주, 신경남/전남고흥, 신동수/경기양평, 신동환/서울영 등포, 신미경/전남여수 신미경/경기양평, 신미정/전북순창, 신상천/충남서천, 신서하/서울강남, 신소 영/서울관악, 신수경/서울동대문, 신영규/경남김해, 신용조/충남홍성, 신유리/서울강북, 신은희/경북 대구, 신일현/경기포천, 신종암/전남여수, 신주희/충남홍성, 신지혜/경기용인, 신진경/전북군산, 신 현숙/경기고양, 신형식/경기남양주, 신혜경/경기부천, 심상옥/서울종로, 심재경/전남완도, 심온/경기 구리, 심찬/서울강남, 안기영/경기양주, 안덕준/서울은평, 안란/광주광역시, 안병권/전북김제, 안성 민/전북고창, 안세희/경기남양주, 안수복/경북포항, 안수영/경기양평, 안승문/경기고양, 안승화/서울 강남, 안완배/경기양평, 안완식/경기수원, 안윤자/광주광역시, 안일국/서울은평, 안정순/경기고양, 안정자/경남창원, 안종욱/경북울릉, 안종운/서울서초, 안창호/서울강북, 안현숙/ 경기파주, 안혜경/ 전남순천, 양말년/경북울릉, 양문실/제주, 양미순/경북예천, 양미자/경기남양주, 양성오/경남창원, 양소영/전남여수, 양옥경/전북전주, 양용진/제주, 양인승/경기남양주, 양인자/경기광명, 양정미/경북 울릉, 양정철/제주, 양종천/강원춘천, 양향숙/전북완주, 양혜숙/제주, 양희은/경기의정부, 양희정/서 울송파, 어프로젝트(대표천재박)/경기파주, 언리밋테이블(대표김해영)/서울강서, 여수미미협동조합/ 전남여수, 엄희순/대구광역시, 여애숙/경북울릉, 오동엽/경북청도, 오미경/전북전주, 오석환/전북익 산, 오성표/전남고흥, 오세훈/경기안양, 오승희/전북완주, 오연숙/제주, 오영상/전남여수, 오용균/서 울송파, 오용준/서울송파, 오원희/인천강화, 오유경/광주광역시, 오인숙/제주, 오태숙/경북울릉, 울 바른편식/광주광역시, 우석영/경기고양, 우선화/경기파주, 우영선/미지정, 우태영/경남거창, 우호창/

경기가평, 원승현/강원영월, 유계숙/광주광역시, 유경/전북김제, 유경숙/서울노원, 유경순/서울강북, 유귀숙/서울동작, 유기상/전북고창, 유미호/서울구로, 유선금/서울서대문구, 유성경/경기수원, 유성훈/전북부안, 유수현/경기남양주, 유신정/서울서초, 유영아/전남고흥, 유은의/경기김포, 유은희/경기파주, 유일순/충남서산, 유재성/강원영월, 유정희/경북포항(고천마실대표), 유종철/경기수원, 유채진/경기여주, 유춘자/경기수원, 유혜선/충북청주, 유희림/프랑스, 육주희/서울관악, 윤가비재/광주광역시, 윤경림/서울관악, 윤경숙/충남서산, 윤광미/경기고양, 윤광희/경기광명, 윤대근/전남나주, 윤대식/전남강진, 윤매숙/경북울릉, 윤병구/전남함평, 윤상미/서울서대문, 윤석진/경기포천, 윤성호/경남창원, 윤성희/충북청주, 윤아영(레스토랑오와이)/서울강남, 윤영실레시피/경기파주, 윤영주/경북울릉, 윤영철/경북울릉, 윤유경/서울동작, 윤일/전북전주, 윤재영/서울강남, 윤종민/전남여수, 윤하영/대전광역시, 유형순/경기평택, 이강백/경기고양, 이강삼/경남하동, 이강식/경기화성, 이경숙/경기양주, 이경숙/경기파주, 이경애/경북울릉, 이경우/경기양평, 이경이/경기양평, 이경임/전남해남, 이경자/충남홍성, 이경태/경북울릉, 이경희/경북울릉, 이계철/전북전주, 이광빈/제주, 이광영/경기파주, 이광진/경기용인, 이광진(일산애)/경기고양, 이귀순/경기하남, 이귀임/전남영광, 이귀조/경북울릉, 이규희/경기오산, 이근왕/경남하동, 이근혜/서울종로, 이금선/경북울릉, 이기동/서울송파, 이기호/전북부안, 이길순/광주광역시, 이나금/경기파주, 이남숙/경기파주, 이다감/경기포천, 이대건/전북고창, 이덕주/경남하동, 이덕준/경북울릉, 이동건/경기수원, 이동선/경기용인, 이동일/경기용인, 이두열/경기김포, 이명/서울강남, 이명숙/대전광역시, 이명숙/경북울릉, 이명주/경기김포, 이명희/서울용산, 이문봉/경기안양, 이미덕/강원횡성, 이미우/경기양주, 이미정/전북군산, 이민/제주, 이민영/경기양주, 이민우/충남보령, 이민일/경기파주, 이민형/경기고양, 이보은/서울구로, 이보향/서울도봉, 이보희/경기과천, 이봉자/경북울릉, 이부경/경기남양주, 이빈파/서울성북, 이상관/경기광주, 이상근/경기양평, 이상배/경기화성, 이상원/경기남양주, 이상익/서울종로, 이상행/서울용산, 이상헌/경북울릉, 이상훈/경기평택, 이상희/제주, 이상희/경남통영, 이석영/경기수원, 이선심/광주광역시, 이선진/인천광역시, 이성철/부산광역시, 이소연/경기수원, 이수경/서울강동, 이수연/경기용인, 이수연/경기성남, 이수진/서울성북, 이숙연/서울동작, 이숙희/경남창원, 이순규/경기남양주, 이순득/경기용인, 이순애/경북울릉, 이순원/서울서초, 이순익/경기평택, 이순자/경북울릉, 이승길/전남완도, 이승숙/충남논산, 이승창/전남완도, 이승현/서울종로, 이승희/전남해남, 이승희/경기평택, 이애경/경기파주, 이연례/전남순천, 이연수/서울송파, 이영성/서울종로, 이영숙/충남예산, 이영숙/충북청주, 이영실/경북울릉, 이영희/경기수원, 이옥순/서울양천, 이옥희/경북경주, 이용우/인천광역시, 이용원/경기여주, 이용이/전북군산, 이우숙/경기부천, 이원로/경기성남, 이원영/경기하남, 이원자/경기여주, 이윤선/제주, 이은미/대구광역시, 이은혜/충남공주, 이음/대구광역시, 이자영/경기양평, 이재덕/서울강남, 이재선/경기양주, 이재영/충남계룡, 이재용/경기화성, 이재현/충북보은, 이재훈/대구광역시, 이정숙/충남예산, 이정숙/전북정읍, 이정숙/대전광역시, 이정아/제주, 이정아/경남하동, 이정아/광주광역시, 이정옥/서울동작, 이정직/미지정, 이정호/강원원주, 이종진/전북전주, 이주니/경기수원, 이주연/서울용산, 이주해/전북임실, 이준섭/제주, 이준호/전북고창, 이지순/경기양평, 이지영/제주, 이지현/경기남양주, 이

지형/경북경산, 이진숙/경기파주, 이진영/전북전주, 이진오/경북울릉, 이진형/경남진주, 이진희/서울 동작, 이진희/서울강북, 이창권/경기화성, 이창희/경기양평, 이춘자/경북울릉, 이현/경북경산, 이현숙/충북청주, 이현숙/서울서대문, 이현영/전남여수, 이현정/서울은평, 이현중/경기고양, 이혜정/경북 포항, 이호진/경기김포, 이희운/전남장흥, 인경숙/광주광역시, 임명검/충남보령, 임미선/경기양평, 임상채/경기파주, 임선자/경북울릉, 임시현/경남창원, 임연숙/전남장흥, 임영모/서울영등포, 임영수/경기고양, 임영숙/전북군산, 임영혜/충북영동, 임인환/경기양평, 임장옥/전북정읍, 임정남/전남여수, 임종우/경남하동, 임지우/경기파주, 임창덕/경기구리, 임태인/광주광역시, 임헌문/경북봉화, 임현/경기과천, 임현주/전남완도, 임현진/서울영등포, 임희연/광주광역시, 장경순/서울종구, 장경식/서울마포, 장내순/전남장흥, 장대석/경기성남, 장명숙(신순규)/실미원, 장명아/광주광역시, 장문희/경기고양, 장미향/경기포천, 장승영/경기광주, 장승희/경기시흥, 장영숙/경기파주, 장영주/서울은평, 장영춘/서울성북, 장유성/부산광역시, 장은숙/충남공주, 장은숙/경남양산, 장인이/경기고양, 장점순/전북임실, 장주연/경기고양, 장중연/전남목포, 장지영/전남무안, 장진호/서울마포, 장하늬/서울마포, 장한/인천강화, 장현남/서울동대문, 장현순/경기파주, 장현예/경기남양주, 전계운/전북고창, 전미경/경기남양주, 전미옥/경기양주, 전민석/경기남양주, 전병덕/경기수원, 전병성/경기파주, 전성희/경북안동, 전송자/경기파주, 전옥자/경기수원, 전은순/경기파주, 전인옥/경북구미, 전효원/대구광역시, 정카페/전북무안, 정갑순/경기광명, 정경희/경기이천, 정관스님/전남장성, 정규화/경남진주, 정금자/경기파주, 정금철/전북부안, 정남묘/서울강남, 정대휘/경북울릉, 정명성/전북정읍, 정미선/서울서대문, 정미영/경기파주, 정병남/전남고흥, 정병수/광주광역시, 정봉희/서울용산, 정상신/이탈리아, 정상택/광주광역시, 정송임/전남장흥, 정순덕/경기파주, 정순옥/경기양주, 정시현/경기용인, 정연숙/경기수원, 정연주/경기양평, 정영숙/경기양평, 정영호/전남무안, 정영희/경남창녕, 정용효/경북울릉, 정윤희/경기고양, 정운교/충북음성, 정은상/경남창원, 정은정/전북부안, 정은하/경기남양주, 정일심/경기양주, 정점숙/경기남양주, 정정기/경기파주, 정정연/경북울릉, 정정하/서울종로, 정제민/충남예산, 정종숙(하영)/전북부안, 정진순/전북고창, 정진영/제주, 정진화/서울은평, 정혁훈/서울송파, 정현숙/경기성남, 정현자/전남여수, 정현주/전남여수, 정현진/경북울진, 정현창/경기양평, 정혜경/경기고양, 정혜윤/인천광역시, 정호진(차르디미농)/경북구미, 정효화/전남화순, 정희정/전남무안, 조경신/전북전주, 조남희/경기성남, 조본호/경남창원, 조순영/전남광양, 조연원/충남예산, 조영례/전남신안, 조영현/전남장흥, 조완석/경기용인, 조용란/경기파주, 조원실/경기고양, 조윤심/전북익산, 조은주/경기고양, 조은진/전북정읍, 조은희/경북경주, 조이스/경북울릉, 조정환/경기화성, 조중기/강원철원, 조창범/제주, 조철/전북진안, 조태경/서울종로, 조한용/부산광역시, 조향순/전남순천, 조혜원/서울서대문, 조희경/경기파주, 주권기/광주광역시, 주귀연/인천광역시, 주대중/전북군산, 주미란/서울도봉, ㈜서스테이블/서울동작, 주연섭/경북문경, 주영하/경기성남, 주은옥/전남여수, 주형로/충안홍성, 주형미/경기부천, 주희진/광주광역시, 지윤진(피코서울)/서울사직, 지은주/서울서초, 진미령/경남창원, 진인희/미지정, 진희승/경기고양, 차나무뱅크/경기용인, 차명옥/전북전주, 차미경/광주광역시. 차시영/전남장흥, 차정단/전북진안, 차주진/경기남양주, 차해리/전남여수, 채점석/제주, 채지애/제주, 천

병한/경남진주, 천정자/전남장흥, 천지연/전남순천, 천호균/경기파주, 최광일/경기파주, 최근태/충북 옥천, 최낙전/경기양평, 최돈익/서울강남, 최득수/충북단양, 최말희/경북울릉, 최미경/경기안양, 최미자/서울노원, 최성희/서울은평, 최송아/경기고양, 최숙자/전남고흥, 최승철/경기안양, 최식림/경남 산청, 최양숙/경기파주, 최영미/서울성북, 최영숙/경남창원, 최영숙/경북울릉, 최영은/서울노원, 최용범/전남구례, 최윤경/서울중랑, 최윤수/경기여주, 최윤희/서울영등포, 최은숙/경기김포, 최은영/경기고양, 최장희/대전광역시, 최정민/경북경산, 최정분/경기파주, 최정희/경기양주, 최종현/경기수원, 최종호/경기양평, 최준표/경기수원, 최준호/서울용산, 최지영/서울강남, 최철/경기연천, 최춘경/전북 전주, 최춘식/충북청원, 최학순/충북청주, 최후경/전남여수, 최희철/경기수원, 추소정/경기수원, 추승민/서울관악, 카펜트리(진접)/슬로푸드친구들(대표 유승현), 프란로칼/경기양평, 하늘농가/슬로푸드친구들(고화원)/경기남양주, 하미현/서울종로, 하완기/경남거창, 하진석/경기고양, 한귀숙/경북울릉, 한기남/전남구례, 한대수/경남거창, 한도연/전남담양, 한명구/서울중구, 한복려/서울종로, 한상준/경북예천, 한성천/경남하동, 한소희/전남여수, 한얼영농조합법인/슬로푸드친구들(대표김원봉)/경기여주, 한영수/경기양평, 한외자/경북울릉, 한우석/슬로청춘, 한은희/경기남양주, 한정심/전북군산, 한주희/경기파주, 한창본/전남장흥, 한태림/전남순천, 한해광/전남여수, 한홍경/부산광역시, 허운/경남산청, 허경희/서울강남, 허기순/경기가평, 허니아씨/서울강북, 허선혜/ 허순연/경북울릉, 허정희/경기파주, 허태원/전남여수, 허향순/제주, 허혜윤/경기양주, 현길아/제주, 현은주/경기남양주, 현종영/서울강남, 현혜인/경기수원, 홍경량/제주, 홍경옥/경기양주, 홍광표/경기화성, 홍미라/경기하남, 홍선경/전북고창, 홍선희/서울성북, 홍순미/서울은평, 현인농원(대표홍승갑)/경기파주, 홍여신/전남강진, 홍은화/경기수원, 홍정아/부산광역시, 홍천기/서울영등포, 홍혜영/대전광역시, 황보순자/경기여주, 황선진/전북남원, 황종환/전남나주, 황주연/서울관악, 황진웅/충남공주, 황현화/전북군산, 황효숙/경북울릉, 효덕목장(대표이선애)/충남천안, (이상1,073명)